

■ 근대철학의 창조자 데카르트

• ”나는 생각한다. 고로 존재한다.“

• ”좋은 책들을 읽는 것은
지난 몇 세기 동안에 걸친
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다.“

• ”인간이 현명해지는 것은
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
경험에 대처하는 능력 때문이다.“

• ”만약 당신이 정말로
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
생전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한
모든 것을 깊게 의심할 필요가 있다.“

• ”진리란 오류의 반대이다.“

• ”데카르트,
유럽 르네상스 이후 인류를 위해 처음으로
이성의 권리를 쟁취하고 확보한 사람이다.“

■ 스피노자의 자유사상

• ”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
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.“

• ”정신은 사물의 현실적 존재를 파악함으로써가 아니라,
사물의 본질을 영원의 상 아래에서
파악함으로써 모든 것을 인식한다.“

• 철학자들의 왕, 신학으로부터
철학을 구출해 낸 철학의 그리스도.”

• “사람은 이성적 동물도

신의 복사판도 아니다.

본능적 의지 또는 욕망을 가진 존재다.

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고

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피한다.”

• “지적인 면에서 그보다 뛰어난 철학자들은 있지만,
윤리적인 면에서 그를 따라갈 철학자는 없다.”

• “음악은 우울증 환자에게는 약이고
고통 받는 사람에겐 좋지 않다.
그러나 귀머거리에게는 약도 독도 아니다.”

■ 파스칼의 팡세

• “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.”

• “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
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.
하지만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.”

• “클레오파트라, 그녀의 코가 조금 낮았더라면
지구의 모든 표면은 변했을 것이다.”

• “도박을 즐기는 모든 인간은,
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
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한다.”

• “이 무한한 우주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
나를 두렵게 한다.”

• “무엇이든지 풍부하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.
더 바랄 것 없이 풍족하다고 해서
그만큼 기쁨이 큰 것이 아니다.
모자라는 듯한 여백, 그 여백이 오히려 기쁨의 샘이다.”

-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
- “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
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.”
- “인류 역사상 뉴턴이 살았던 시대까지의
수학을 놓고 볼 때, 그가 이룩한 업적이 반 이상이다.”
- “나의 능력은 평범하다.
오로지 실행력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.”
- “진리는 복잡하거나 섞여 있는 것들에서가 아니라
단순함에서 발견됐다.”
- “대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어둠에 감싸여 있었도다.
주께서 ”뉴턴이 있으라!“ 하시매 모든 것이 밝아졌도다.”

■ 모차르트의 천재적 음악세계

- “천재를 만드는 것은 지성도 아니고 상상력도 아니다.
사랑, 사랑, 열렬한 사랑이 천재의 영혼을 만든다.”

-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.”

- “오페라는 반드시 시가
음악에 종속되어야 한다.
아니,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연극을 이해하고
무엇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
훌륭한 작곡가가 현명한 시인,
진정으로 뛰어난 인재를 만나는 것이다.”

■ 마리 앙투아네트의 진실

- “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.”
- “자만은 항상 다른 사람의 감탄에 의해 강화된다.”

- “이 목걸이를 살 돈으로 군함을 축조하는게 옳다.”

■ 제국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

- “불가능이란 말은 나의 사전에 없다.”

• “작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.
그러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.”

• “장군께서는 항상 소수의 병력으로도
다수의 병력을 이기셨습니다.
아니다. 나는 내가 싸우는 곳에서는
늘 다수의 병력으로 소수를 이겼다.”

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

• “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
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,
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
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.”

• “영국의 산업 혁명은
와트의 발명만이 아니고
스미스사상의 표현이기도 하다.”

• “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할지라도
기본 바탕에는 이와 반대되는 선한 본성도 있다.
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운명과
처지에도 관심을 갖는다.
또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지라도
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기도 한다.”

• “인간은 거래를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.
개는 다른 개와 뼈를 교환하지 않는다.”

• “인간의 삶이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

소유물이 곧 나 자신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.”

- “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유와 편안함,
근심 걱정 없는 안전함은 영원히 포기해야 한다.”

- “미발표된 많은 글들을 태워 달라.”

- “<국부론>은 아메리카 신대륙의 미국이
1776년의 독립선언의 해에 출판되었다.
이것은 영국의 중상주의적
식민지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.”

■ 베토벤의 불후의 명곡

- “가슴에서 우러난 음악은
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도 알아서
길을 찾아 파고든다.”

- “평범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기쁨보다
고통을 겪고 난 후에 차지하는 기쁨이 훨씬 값지다.”

- “저 사내를 잘 지켜보게,
나보다 유명하게 될 존재가 나타났다네.” -----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

- “악보를 틀리게 연주하는 것은 넘어갈 수 있다.
열정 없이 연주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.”

- “나에게는 너무 좋다.
왜냐하면 이 피아노는
나만의 음색을 낼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이다.”

- “오직 너의 예술을 위해서 살아라!
지금 너는 귀의 감각 때문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나,
이것이 네가 살아가는 오직 하나의 길이다.”

- “고귀함이야말로 왕을 만드는 것이기에
심지어 가난할 때에도 나는 왕으로 살았다.”

■ 괴테의 고전주의 문학세계

- “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지 않고,
근심에 찬 밤을 울면서 지새워 보지 않고서는
인생의 참맛을 모른다.”

- “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.
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.”

- “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.
이를 적용해야 한다.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.
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.”

- “하늘에는 별이 있어 아름답고,
대지에는 꽃이 피어 아름답지만
인간에게는 사랑이 있어 아름답다.”

- “결혼생활은 참다운 뜻에서
또 다른 연애의 시작이다.”

- “서두르지도 말고, 쉬지도 말아라.”

- “괴로움을 남기고 간 것을 맛보라!
고난도 지나고 나면 감미롭다.”

■ 조지 워싱턴의 독립 전쟁

- “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라.”

- “미국인들은 자유인이 될 것인가, 아니면 노예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. 지금은 우리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인가,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기이다. 앞으로 태어날 수백만의 미국인의 운명이 하느님의 보호 아래 우리 부대의 용기와 행동에 달려 있다. 우리는 이 상황을

극복할 것인가, 아니면 굴복하여 죽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.”

- “전쟁에 대비하는 것이
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.”

- “공동의 합의에 의해 정의된 법이
절대 개인에 의해 짓밟혀서는 안 된다.”

- “타국에 대해 습관적 증오나
혹은 습관적 호의를 품은 국민은
자신들의 증오심이나 애착심의 노예이다.”

- “모든 것이 잘 되었다.
이제 나는 죽는다.
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.”

▣ 찰스 다윈의 진화론

- “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이 아니고,
또 영리한 종도 아니다.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.”

- “거리낌 없이 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
아직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.”

- “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긴다.”

- “잘못을 고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진화이다.”

- “인간과 원숭이는 공통 조상을 갖는다.”

- “가장 오래 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
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다.”

- “나는 죽음 앞에서
일말의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다.”

■ 링컨의 노예 해방

- “국민의, 국민에 의한,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.”

- “내가 성공을 했다면,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.”

- “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.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.”

- “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.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.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. ‘괜찮아.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.’”

- “악어와 흑인이 함께 있다면 나는 흑인을 도울 것이다. 하지만 백인과 흑인이 함께 있다면 백인을 돕겠다. ----- 대선 연설에서 스티븐 더글러스가 한 말

- ”노예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.“

- ’이 성전에는 미합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미국을 구원한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한 기억들이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.’ ----- 링컨 기념관에 새겨진 헌사

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

- ”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.“

- ”철학자들은 단지 지금까지 세계를 해석해왔다. 하지만 이제는 세계를 변화시켜야 할 때이다.“

- ”종교는 모든 인민들의 아편이다.“

- ”모든 혁명은 낡은 사회를 해체시킨다.
그런 점에서 혁명은 사회적이다.
모든 혁명은 낡은 권력을 전복시킨다.
그런 점에서 혁명은 정치적이다.“

- ”<자본론>은 비록 미완성이지만
수많은 책들을 낳을 것이다.“

- ”저리 꺼져! 유언 따위는 살아있을 때
말을 다 못한 얼간이들이나 하는 말이라고!“

■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

- ”신은 죽었다.“

- ”이 원숭이들을 보라. 이들은 권력을 원하며,
무엇보다도 권력의 지렛대인 돈을 원한다.
이들 모두는 높은 권좌를 원한다.
그러나 권좌 위에는 똥이 있는데.“

----- 니체의 <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>에서

- ”등산의 기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다.
그러나 나의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.
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뛰다.
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 보라!
그 이상 삭막한 것은 없으리라.“

- ”산다는 건 원래 이런 거야.“

- ”모든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면서
'산다는 건 원래 이런 거야'라고 말하는 곳.
그곳을 나는 국가라고 부른다.“

■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

- ”운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운명에 먹히고

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은 운명이 길을 비킨다.“

- ”언론이나 다수결이 아닌,
철(무기)과 피(전쟁)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“

- ”우리는 강자의 망설임 때문에 강자가 약해지고
약자의 대담함 때문에 약자가 강해지는
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.“

- ”슬기로운 자는 역사에서 배우고,
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운다.“

- ”역사란 인쇄된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다.
중요한 것은 역사를 만드는 일이지,
역사를 쓰는 일이 아니다.“

- ”구해주지는 못할망정 나더러 죽으란 거냐!“
”날 용서하게. 내가 겨누는 건 자네의 포기하는 마음이네.“

- ”사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.
그것이 일어날까지 기다려야 한다.“

- ”청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
다음 세 마디뿐이다.
즉 일하라. 더욱 더 일하라. 끝까지 일하라.“

▣ 그림에 미친 영혼 고흐

- ”시작은 그 무엇보다 어렵지만 계속해 나간다면
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.“

- ”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
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뜻이다.“

- ”평범한 길은 포장도로와 같다.

건기엔 편할지 몰라도 꽃을 피우진 못한다.“

- ”대단한 업적은 충동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모여 점점 이뤄지는 것이다.“

- ”나는 침체와 고민에 빠진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열망이 담긴 우울을 택한 것이다.“

- ”나는 삶에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. 하지만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.“

- ”나는 내 심장과 영혼을 그림에 쏟아부었고, 그러면서 미쳐갔다.“